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 강화

전북교육청, 학교 모니터단 교육... 공사 안정성·신뢰성 확보 나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안전하고 학교 석면관리를 위한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제거공사에 대한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학부모·민간단체·감리원·석면 제거 업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 및 석면모니터

단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현장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 석면해체·제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이번 모니터단 교육은 두 차례에 걸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재 배부 및 석면안전관리 민관협의회가 희망학교로 찾아가는 교육방식으로 변경됐다.

교육대상자는 26개교에 120여 명이

주요 내용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추진방향 ▲석면 일반 및 제도 이해 ▲모니터단 활동요령 ▲석면잔재물 조사방법 등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 평가제가 시행되고, 비상농도 측정 관련 법률도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석면 제거에 대한 계약관리 및 공사감독을 강화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석면업체와 감리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모니터단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겨울방학 동안 도내 26개교에서 4만2,894㎡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국 콘크리트 기술경연 전북대 건축공학과 수상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팀이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학 건축공학과는 27회째를 맞는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7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이 분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했다.

일반부와 학생부 품질부 및 창의성부문 등의 총 58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건축공학과는 강민국, 김윤호, 김영식, 송서연, 오호영, 정의성, 한득열 학생으로 구성된 'Make it 팀(지도교수 소승영)'이 참가해 콘크리트회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경제적·면적도 새로운 콘크리트 배합기술을 겨뤘던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팀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콘크리트를 배합 설계해 경제성이 매우 높고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점밀도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강민국 학생은 "동료들과 대회를 준비하며 학과에서 배운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건축에 중요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매년 이어지고 있는 건축공학과 우수성을 이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과시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팀이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제4차 국제학술회의... 내일 온라인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 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단은 줌(Zoom ID : 974 1286 1946 / Password: WKU0515)을 활용해 제4차 국제학술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동북아 역사·문화의 상처와 치유: 제노사이드 중심으로를 주제로 17일 열리는 학술회의는 동북아시아인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긴 역사 속 제노사이드에 초점을 맞춰 역사·문화에 새겨진 상처와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흔으로 남아 차차 치유되어가

는 과정을 역내(域內)와 역외(域外) 시선의 교차 속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공통 기억을 소용의 기반으로 삼아 치유의 정치와 새로운 차원의 동북아 지역 감성문화 연대 가능성도 타진한다.

박맹수 총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일본 치바현립대학 강석상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관동대지진, 남경대학살, 여순대학살, 동학농민군학살 등 동북아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

의 기조강연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난징대학살(The 1937-1938 Nanjing Atrocities)을 저술한 네브레스 카링컨대학 수필 루 교수와 히토츠바시 대학 이규수 교수 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이진희 교수 등 다양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도 기대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장 김정현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인종, 이념, 빈부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노사이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와 연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국제학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정영원기자

전주대 유세미 팀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제21회 중기 기술혁신대전

전주대 산학협력단 유세미 팀장이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1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협력 부문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돼 중소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유 팀장은 10년 동안 전주대에서 중소기업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해 오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상담하고 기술을 매칭하는 등 산학연협력 활성화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유 팀장은 대학의 보유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연계·협력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할 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산학연협력을 위한 기초 사업(기술지도, 특허출원 등)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유세미 팀장은 "간담회와 찾아가는 설명회 및 수요 예측 분석 제공, 기업 맞춤형 R&D 컨설팅 등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도내 우수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로, 중소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학연협회 등 7개 기관이 주관한다.

/장은성기자

돌봄전담사 24일 총파업 예고

학비연대, 임금교섭안 반발

초등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돌봄 전담사들이 소속 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내년도 임금교섭안에 반발,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학비연대는 이날 "초등 돌봄을 비롯해 전 직종 총파업을 공식 선포한다"며 "올해 임금교섭을 또 다시 파국으로 몰아가는 책임은 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24일 총파업은 돌봄 파업과 동시에 진행한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 돌봄 개선에 임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임금 총액 인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상시 전일제 전환은 돌봄 전담사들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돌봄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

으로 지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채용으로 돌봄 교실 확충과 서비스 질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시간제 근무로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간식 준비, 행정업무 처리 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근시간 전후에 무급으로 초과 근무를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내년 연평균 임금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학교비정규직은 기본급 0.9% 인상에 급속 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수 없으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돌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문병량 교수, 한국골프학회 회장 선임

예원예술대학교 문병량 교수(전북체육회 이사)가 한국골프학회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골프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제8대 회장직으로 문병량 교수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한국골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등재지인 골프연구를 발행하는 스포츠계의 권위있는 학술연구 단체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